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3월 25일

## Cuomo 주지사, 참전용사와 예비군, 군인 가족들을 위한 주 방위군 채용 박람회 발표

*주지사는 참전용사의 원조에 대한 주정부의 의지를 강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방위군이 3월 27일(목) Lexington Avenue Armory에서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Hiring our Heroes(우리의 영웅들에게 일자리를)” 채용 박람회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mtrak에서 Wells Fargo에 이르기까지 130여 개의 기업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행사는 참전용사, 군 배우자 및 예비군 및 주 방위군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참전용사, 예비군 및 군인 가족들은 이미 자신들의 특별한 능력, 헌신과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능력을 전선에서 일선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Empire State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참전용사 및 군인 가족의 고용에 대한 투자는 수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채용 박람회는 미 상공회의소가 지난 2년간 개최한 수 많은 참전용사 채용 박람회 중 하나입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참전용사들의 기술과 훈련을 원하는 기업과 참전용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뉴욕시에는 약 192,000여 명의 참전용사들이 살고 있으며 주 전역에 걸쳐 약 90만여 명의 참전용사들이 있습니다. 참전용사 중 약 88,000명은 911 테러 직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4년 2월 기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참전용사의 실업률은 9.2%였습니다. 이것은 비참전용사에 대한 실업률보다 6.9% 더 높습니다.

주 노동부 국장 Peter M. Rivera는 “노동부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남녀 군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Cuomo 주지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참전용사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잠시 들러 기업 채용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Korean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운 참전용사는 가까운 뉴욕주 커리어 센터를 방문하여 일대일 일자리 검색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력서 작성 등 취업 기술에 관한 워크숍은 채용 박람회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8시에 열립니다. 이력서 작성 및 취업 워크숍에 참여하고 싶은 참전용사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회사 대표들과의 만남에 관심이 있는 참전용사는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행사에 등록하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hiringourheroes.org/new-york-city>

참전용사는 뉴욕주의 96개 커리어 센터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는 항상 가장 먼저 대기 중인 직원으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자격이 되면 일자리와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커리어 센터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labor.ny.gov/career-center-locator](http://www.labor.ny.gov/career-center-locator)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